

보도설명자료 (‘21. 10. 12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26년까지 전체발전량의 25%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한다는
기사는 사실과 다름. 신재생 발전원가는 지속적으로 하락
하고 있어 현재 수준에서 신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을 추계
하는 것은 불합리

(10.12일자 한국경제 보도 등에 대한 설명)

- ◇ RPS의무공급비율은 국가전체의 신재생 발전 비중과 다르며,
‘26년 RPS의무공급비율 25%는 신재생 비중 약 20% 해당
- ◇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은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현재 수
준에서 추계는 불합리하며, 기술개발과 사업간 경쟁 촉진 및 RPS
정산방식의 효율화 등을 통해 RPS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임
- ◇ 10월 12일 한국경제 <발전사 신재생 구매비용 16조 늘어난다…
전기료 인상 불가피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- 산업부는 지난 6일 ‘26년까지 전체발전량의 25%를 신재생에너지로
공급하는 ‘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’ 개정안을 발표
-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25%달성시기를 ‘26년으로 당초대비 9년
앞당기면서 한수원 등 6개 발전사의 신재생 에너지 구매비용이
향후 15년간(‘22~‘36) 16조원 증가 예상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RPS의무공급비율은 전체 신재생 발전 비중과는 다르며,
 - * RPS의무공급비율은 공급의무자(23개사)의 전년도 non신재생발전량에 대해 적용
 - ‘26년 RPS의무공급비율 25% 적용시 전체 신재생 발전 비중은
약 20% 수준에 해당됨
- 재생에너지 비용관련 현재 기준에서 ‘36년까지의 비용을 추계하는
것은 불합리
 -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해 발전단가는
지속 하락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은 지속 감소 예상
 - 예를 들어, 태양광 입찰시장의 평균 낙찰가는 ‘17년 18.3만원/MWh
에서 ‘21년(상반기) 13.6만원/MWh로 지난 4년간 26%가 하락하였음
 - * 태양광 낙찰 평균가(Mwh) : (‘17) 183,097원 → (‘18) 177,012원 → (‘19) 163,273원 →
(‘20) 147,561 → (‘21) 136,129
 - 향후 기술개발과 사업간 경쟁 촉진 및 RPS 정산방식의 효율화 등을
통해 RPS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

※ 문의 : 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(044-203-5360) / 김범수 사무관(5362)